

Cardinal Kim Soo-hwan's Perspective on Human Beings and on Life

Namhui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Cardinal Kim Soo-hwan was a Korean Catholic cleric and the first Korean cardinal. He was also a social activist who influenced the modern history of South Korea. He explored existential questions about human beings and the universal practice principles. His answers to these questions illustrate Cardinal Kim's perspective on human beings and on life. Today, as the coronavirus pandemic presents a mirror to humankind, it is necessary to revisit Cardinal Kim's views of human beings and of life. Cardinal Kim demonstrated a deep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Hence, this study examines Cardinal Kim Soo-hwan's perspective on human beings and on life using the Complete Collection of Cardinal Kim Soo-hwan and the Collection of Cardinal Kim Soo-hwan's Words, two compilations of Cardinal Kim's speech and writings. First, the study examines what it means to be human. This topic occupied Cardinal Kim throughout his life. The study also examines what it means to be human in a practical sense. This question is explored in the context of the labor movement of the 1970s,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the 1980s, and the life movement of the 1990s. The study confirms that, according to Cardinal Kim, being human is exemplified in the life movement as time went by. This study also concludes that, for Cardinal Kim, the ultimate goals of human character are personal development and being a religious person[homo religiosus].

Key words : Cardinal Kim Soo-hwan, perspective on human beings, perspective on life, labor movement, democratization movement, life movement, homo religiosu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search Fund, 2021.

* **Corresponding to** Namhui Kim (Professor, Catholic Colleg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 namikisb@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김수환 추기경의 인간관과 생명사상

김남희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요 약

김수환 추기경은 한국 천주교의 성직자이자 한국인 최초의 추기경이다. 한편 그는 한국 현대사에서 사회운동가로 평가받는다. 한 사회 안에서 종교인이자 사회운동가로 평가받는 이면에는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추기경의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과 보편적 실천원리가 있다. 이는 김수환 추기경의 인간관과 생명 사상이라 명명될 수 있다. 오늘날,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를 비추는 거울’임을 성찰해야 하는 시점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 추기경의 인간관과 생명 사상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추기경이 생전에 강연하거나 기록했었던 글을 취합하여 편집·간행한 『김수환추기경전집』과 『김수환추기경말씀집』을 토대로 추기경의 인간관과 생명사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추기경의 평생 화두였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실천적 의미로서 ‘인간답기’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노동운동[1970년대], 민주화운동[1980년대], 생명운동[1990년대] 안에서 짚어보면서, 추기경의 ‘인간답기’는 곧 시대 변화 속에서 생명운동으로 확산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추기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었던 인간상은 곧 자기 쇄신을 통한 종교적 인간이었음을 고찰하였다.

주제어 : 김수환 추기경, 인간관, 생명 사상,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생명운동, 종교적 인간

I. 들어가며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당혹감이었다. 이 바이러스가 예상치 못하게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자 사람들의 당혹감은 혐오와 차별로 이어졌다. 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 ‘쿵 플루’(쿵푸와 플루의 합성어), ‘우한폐렴’이라 부르며, 중국인 혐오를 부추겼다. 음모론과 같은 허위 정보, 왜곡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마스크를 쓴 동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한 제노포비아(xenophobia 인종혐오)와 증오범죄로 확대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은 세대 간의 혐오를 표출하기도 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노년층을 ‘부머 리무버’(boomer remover)라 불렀다. ‘부머 리무버’는 베이비 부머를 제거한다는 뜻으로, 베이비 부머는 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 러쉬(rush) 세대를 말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는 않으나 ‘우편번호가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는 말처럼, 빈부의 격차, 사회적 계층과 지위에 따라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영향은 달랐다. 이를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라고 하는데, ‘코로나 디바이드’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일상에서도 타인에 대한 기피나 혐오가 일어났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기침을 하면 다들 피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주변 사람을 잠재적 확진자 또는 바이러스 전파자로 낙인찍는 시선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야기된 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고정되고 편협된 사회적 가치가 드러난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과 그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투사하고 지금처럼 타인의 고통과 죽음에 무감각해진 채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에만 몰입하는 한, 우리는 파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 파국 앞에 선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파국을 돌파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미국의 의료사학자인 프랭크 스노든(Frank Snowden)은 “감염병은 인간사회를 비추는 거울”(The Korea Times, 2021.06.10)이라고 했다. 이는 역병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지구를 덮쳤을 때, 인류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 바이러스 전염을 막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쉽게 정복되지 않으면서,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를 비추는 거울’임을 성찰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성찰 중의 하나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의 욕망이다. 경제 성장을 위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동물 서식지로까지 확장되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결국 동물의 몸에 서식하는 병원체들이 인간에게까지 노출되었기 때문이다(최재천, 2020: 25). 1997년 조류 독감 사태 이후, 방역 전문가들은 폐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출현을 이미 경고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류는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았다. 에볼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까지도 인류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들 바이러스와 직면했고, 결국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

인류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재난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절망과 희망, 위기와 기회, 의문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에 의해 야기된 역병이다. 극복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닌 우리 자신이다. 즉 자연을 훼손하면서 무제한으로 개발한 인간의 욕망이다.

본고에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 안에서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기에 필요한 지혜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 ‘말씀’은 추기경 생전에 강연하거나 기고했던 내용을 취합·편집하여 18권으로 간행한 『김수환추기경전집』(이하 『전집』으로 표기)과 33권으로 정리한 『김수환추기경말씀집』(이하 『말씀집』으로 표기)에 수록된 글을 말한다.¹⁾ 『전집』과 『말씀집』에는 가톨릭 성직자로서 신자들에게 전하는 사목 교서와 강론뿐만 아니라 사회기관과 언론사로부터 의뢰받은 기고문, 강연, 인터뷰, 축사 등의 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기와 메모, 서간도 수록되어 시대적 상황에 따른 추기경의 신앙고백과 인간적 고뇌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추기경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추기경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집』과 『말씀집』에는 인간의 존재 이유와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추기경의 통찰력이 담겨 있다. 따라서 오늘날 ‘코로나 인류’는 추기경의 시대를 꿰뚫는 통찰적 시선을 당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현재적 상황 속에서 성찰하고, 미래의 교훈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추기경의 평생 화두였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전집』과 『말씀집』을 토대로 살펴보고, 실천적 의미로서 ‘인간답기’란 무엇인지 추기경의 행적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추기경의 ‘인간답기’는 시대 변화 속에서 생명운동으로 확산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추기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인간상은 무엇이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추기경의 인간 존중은 노동운동-민주화운동-생명운동을 통해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종교적 인간으로 완성하고자 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²⁾

1) 『김수환추기경전집』은 총 1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집을 기획한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는 1965년부터 2000년까지의 각종 원고 총 3,481편 가운데 2,078편을 선정하여 출판하고, 2001년 6월 27일 김추기경의 팔순을 기념하여 봉정했다. 그 이후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비서실에서는 1965년부터 2008년까지 수집된 김수환 추기경의 모든 원고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김수환추기경말씀집』을 2001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총 33권의 한정판으로 간행하였다(박일영, 2018: 171-172).

2) 본고는 에세이 형식으로 발간된 「김수환 추기경과 녹색평화」(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 편,

II. 김수환 추기경의 인간관

1. 김수환 추기경의 화두, 인간

“하느님과 그분의 성자 그리스도의 관심과 사랑이 인간이었듯이 교회의 관심과 사랑도 먼저 인간이어야 합니다”(‘와서 보시오’(1981. 6. 14), 『말씀집-1981』, 223)³⁾라고 한 바와 같이, 김수환 추기경에게 ‘인간’은 평생 중심되는 화두였다. 추기경에게 이 화두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1969년 1월 1일 신년사에 잘 나타나 있다.

(중략) 앞으로 한해를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리고 아무리 귀찮고 괴롭더라도 인간사회를 피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와 함께 가난과 비참 속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고난을 나누고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은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구세주가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들 스스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화(化)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에 불사르는 몸이 되라는 지상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교회는 구원의 표지’, 『전집』 1, 123-124).⁴⁾

1969년은 추기경이 서울대교구장이 되고 맞이한 첫해이다. 당시 서울대교구는 극심한 재정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해결해야 할 부채가 상당했다. 이러한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서울대교구는 또 다른 과제도 안고 있었다. 바로 ‘교회는 세상 안에,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른 한국 교회의 쇄신이였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대교구의 많은 성직자들은 공의회가 제시한 방향에 회의적이었다(이충렬, 2016: 312). 또한 신자들은 전례에서 미사의 형식이 바뀌었다는 것만 인식할 뿐, 공의회에 대한 신자들의 인식도는 낮았다(박승찬, 2020: 11).

교구의 재정 문제와 교회 쇄신에 대한 사제들의 비협조, 그리고 공의회에 대한 신자들의 인식도가 낮은 상황 속에서 추기경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오히려 사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했다. 사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형제적 사랑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즉 1969년의 신년사는 앞으로 서울대교구가 나아가야 할 사

『김수환 추기경에게 정의와 평화의 길을 묻다』, 가톨릭출판사, 2021)을 논문의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내용 또한 대폭 수정하였음.

3) 이하 『김수환추기경말씀집』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글의 제목(날짜), 『말씀집 - 글이 수록된 년도』,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4) 이하 『김수환추기경전집』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글의 제목, 『전집』과 권수,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목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인간에 대한 관심과 형제적 사랑의 손길은 당시 서울대교구장으로서의 사목 목표였던 ‘세상 속의 교회’가 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이기도 했다.

이러한 추기경의 사목 방향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추기경은 서울교구장이 되기 전부터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이미 관심을 두고, 공의회 진행 상황을 한국에 알리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의 쇄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다. 가톨릭시보사(가톨릭신문사의 전신)에 실린 다음의 글은 공의회에 대한 추기경의 생각과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공의회는 지금까지의 공의회와는 달리 그 누구도 단죄하지 않았다. 심지어 무신론이 본질적으로 유설(謬說)임을 명백히 밝히면서도 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왜 이같이 전에 없이 사랑에 살고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가? 여기 대하여서 우리는 많은 이유를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마디로 줄여서 답한다면 그것은 결국 인간 특히 현대인이 이 사랑과 대화에 결핍돼 있기 때문이다.

공의회가 현대 세계의 제반 문제, 빈곤과 기아, 산제와 인구, 정치, 경제 및 사회 발전, 핵무기와 전쟁과 평화를 취급한 이유는 바로 이 인간 때문이다. 얼핏 생각하면 이 같은 문제들은 종교인이나 교회의 영역 밖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빈곤과 기아, 정치와 경제, 전쟁과 평화는 막연히 비인격적인 사회나 세계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문제이다. 굶는 것은 인간이요 혈벗은 것도 인간이다. 또한 전쟁의 불안 속에 전전공공하는 것도 인간이다. 그렇다면 그 존재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이 같은 인간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뿐만아니라 공의회가 강조한 교회쇄신과 제도의 현대화 역시 이 인간구제를 위해서다(“사랑과 대화로 인간을 구하려”(1965 12. 25.), 『말씀집-1965-70년』, 21).

위의 글에는 가톨릭시보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외신으로 들어오는 공의회 기사를 일일이 번역하며 느꼈을 추기경의 고뇌와 결단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교회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해 쇄신하고 현대화를 꾀하고자 했던 근원적인 목적이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에 직면한 인간을 구제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인간구제 대상에 무신론과 같이 교회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배제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대화와 사랑만이 유일한 길임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그는 대화와 사랑을 통한 인간구제가 곧 교회의 쇄신이자 한국 교회의 쇄신이라 보았다. 따라서 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른 교회의 쇄신이 한국 교회에도 이루어지길 갈망하면서, 한국 사목자와 신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이제 공의회의 막은 닫혔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이신 천주를 아버지로, 그리스도 안에 온 인류를 형제로 불러들이는 새로운 세기(世紀)의 문은 열렸다. 그럼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열린 문으로 우리의 동포들을 천주께 인도하려는 것이다. 환언하면 그리스도를 세상에 모시고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

회에는 그보다 앞서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쟁기를 손에 들고 우리의 땅을 파헤치는 일이다. 공의회라는 거울에 우리 신앙 생활과 사목자세를 비춰보는 것이다. 이 같은 반성과 각성이 있을 때 우리도 쇄신된 교회가 될 수 있다(“사랑과 대화로 인간을 구하려”(1965 12. 25.), 『말씀집 -1965-70년』, 22).

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라 한국 교회를 쇄신하는 일을 “쟁기를 손에 들고 우리의 땅을 파헤치는 일”이라 비유할만큼 지난할 것이라 보았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모시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무엇보다도 “공의회라는 거울에 우리 신앙 생활과 사목자세를 비춰”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추기경에게 중요한 화두였던 ‘인간’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라는 거울에 비춰 본 추기경 자신의 신앙태도이자 사목자로서 가져야 할 우선적 관심 대상이었다. 추기경의 교회 쇄신을 위한 반성과 각성에 대한 요청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진다.

그 실천은 바로 ‘인간답기’이다. 추기경에게 ‘인간답기’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로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과 ‘욕심스럽고 사랑을 망각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과 대화하기’였다. 여기서 사랑과 대화는 추기경이 1969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그들과 ‘형제가 되는 것’이며 ‘고난을 나누고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다. 추기경의 ‘인간에 대한 관심’이 곧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라면, ‘인간답기’는 인간 존엄성 회복의 구현인 것이다.

따라서 1969년 신년사는 단순히 새로운 교구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는 글이라기보다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이 한국 교회에 뿌리내리길 회구하는 추기경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글이라 할 수 있다. 즉 추기경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보았고, 교회 쇄신은 ‘인간답기’에서 시작해야 함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라 할 수 있다.

2. 추기경의 ‘인간답기’

추기경의 ‘인간답기’는 여러 행적을 통해 나타났고 다양한 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1968년 서울대교구장에 착좌한 후 1998년 은퇴까지 추기경이 전개한 운동은 1970년대의 노동운동,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1990년대의 생명운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970년대 당시 추기경에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은 바로 저임금에 허덕이는 영세근로자, 빈곤을 면치 못하는 농어민들, 도시판자촌의 극빈자들, 온갖 병고와 비참 속에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가장 심하게 침해받던 계층은 저임금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장기 독재의 합리화를 경제발전에서 찾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주들의 노동인권 탄압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추기경은 서임 직후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을 도구로 쓰는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을 비판했고,

노동문제와 노동환경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촉구했다.

노동문제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운동이 1970년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1980년대는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으로 점철된다. 추기경은 1981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기도회 강론에서 당시 한국 사회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진단했다. “작년 봄만 하더라도 우리 중의 많은 이가 이제 소원하던 민주사회가 곧 이룩될 것처럼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봄”은 짧았습니다. 학생들의 가두시위에 이어서 광주사태가 나고 세상은 다시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많은 이들에게 밀어 닥쳤습니다.”(“참다운 그리스도의 길”(1981. 6. 11), 『말씀집-1981』, 211).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어두움이 덮여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등불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는 어디서 빛을 얻고 희망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 빛과 등불은 다른 데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빛이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뿌리에 대한 성찰”(“와서 보시오”(1981. 6. 14), 『말씀집-1981』, 223). 당시 조선교구 설립 150주년 기념 지구신앙대회에서 추기경은 한국 천주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재천명했다.

민주화를 위한 교회의 사회적 참여는 1980년대 내내 이어졌다. 추기경은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남으로써 이 땅 어디에도 몸 붙이고 살 곳을 찾지 못하는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 직장에서 쫓겨나 갈 데 올 데 없이 헤매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일터도 구할 수 없고 먹을 것도 잘 곳도 없는 실직한 젊은 노동자들, 혹은 이번 부천 경찰서 사건의 희생자인 권양과 같이 자신의 파괴된 인생에 대해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기막힌 처지에 놓인 이들, 그밖에 이 땅의 인간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하여 투신하다가 잡혀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인권은 가장 소중한 가치”, 『전집』 5, 338)을 위로했다. 한편 공권력을 남용하고 횡포를 저지르는 정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했고, 생활 향상과 권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정치범과 그 가족의 눈에,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의 눈에, 집도 절도 없이 철거를 강요당하는 도시 빈민의 눈에, 피눈물이 고이지 않게 하고, 그들 가슴에 한이 쌓이지 않게 해주기를 우리는 진정 기도하는 심정으로 정부 당국에 호소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작전을 벌이고, 고문을 통해 용공좌경의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최루탄을 무차별로 난사, 살상을 일삼는다면 그 눈물과 한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 『전집』 5, 348)

당시 권력자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 천주교회의 수장이자 한 사제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했고, 또한 신자들에게도 교회의 사회참여를 독려했다. 천주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때마다, 그는 천주교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민주화운동을 한 것

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교회가 이바지하기 위해 참여했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인간답기’의 구현인 민주화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는다.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지고, 이후 1987년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각계각층의 민주 시민운동도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추기경은 권력구조나 제도개선 만으로는 참된 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보았다. 민주화는 곧 ‘인간답기’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인간답기’가 없는 곳에 참된 민주화는 없다고 보았다.

우리가 민주화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화를 위해서입니다. 인간화가 따르지 않는 곳에 참된 민주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화는 권력 구조나 선거 제도를 바꾸는 개헌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권은 가장 소중한 가치”, 『전집』 5, 340)

이제 민주화운동은 생명운동으로 전환된다. 그는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 곳곳에 잠재되고 누적되어 있던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이 용서, 화해, 사랑, 그리고 평화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의 욕망과 이기주의, 생명경시에 대한 경종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있었다. 그는 <한국일보>(1988. 2. 25)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한국 사회에 만연해진 인간소의 문제를 “가난의 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경제발전의 열매는 고루 분배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과 증오가 싹트었으며, 인간을 소외시킨 물질 위주의 가치관이 국민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있다”(“사람 사랑을 국정의 목표로”, 『전집』 15, 478-479)고 지적했다. 이는 김 추기경이 생명 존중에 대한 근본적 각성을 한국 사회에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김수환추기경의 생명사상

1. 생명, 우리의 평화

추기경은 화해와 일치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위한 생명운동을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첫 번째가 1988년 9월 20일 명동성당에서 선포한 ‘한마음한몸’ 운동이다. ‘한마음한몸’ 운동은 제44차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성체성사의 의미를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 발기되었다. 당시 운동의 이념을 살펴보면, “역사 속에 신비로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믿고 현양함으로써 세상 모든 인류가 온갖 종류의 장벽을 넘어 평화를 이룩하고 회심과 나

눔으로 형제적 일치를 이루도록 이바지하며 나아가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과도 화합하여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생활 쇄신 실천 운동”(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운동 교구본부, 4)이라 천명하고 있다.

1988-89년 초창기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입양 및 결연 등 직접적 인간 생명에 대한 운동을 실시했다면, 90년대에는 환경보전, 민족화해, 우리농촌살리기 운동 등으로 확대되어 전개되었다. 무엇보다도 ‘한마음 한몸’ 운동에서 환경보존과 우리농촌살리기를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7월 30일 인터뷰에서 추기경은 당시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천주교회는 그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이에 따라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의평화위원회 등 몇몇 단체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교회의 역할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들의 도덕적 각성과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의 존엄성 등에 대한 강론이나 여러 모임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바른 인식을 심어가야 합니다(“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크리스찬의 사명”, 『전집』 16, 27).

추기경은 생태계 위기를 가져온 가장 주요한 원인이 도덕성의 문제, 특히 생명존중의 결여라고 보았다.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개발하고, 그 개발의 목적을 사람과 생명에 두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인 손익에 두고 있음을 비판했다. 추기경에게 자연은 단순히 보호해야 할 물질적 대상을 넘어 인간과 같은 하느님의 피조물이었다. 자연에 대한 추기경의 신념은 인간 중심의 환경운동을 극복하고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는데 있었다. 그래서 환경운동 대신 환경보존이라 칭했고, 이 환경보존운동을 생명운동에 포함시킴으로써 인간 중심의 생명 개념을 확장시켰다. 1986년 11월 9일, 가톨릭농민회 창립 20주년 기념대회에서 추기경은 ‘가톨릭 농민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농촌사회의 인간화를 위해 크나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농민운동이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을 위한 참된 농민운동으로 거듭나고 새생활 공동체 운동으로 승화시켜나갈 것’을 강조했다(Catholic Times, 1986.11.09.).

추기경이 환경운동을 생명운동으로 확장하여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담화문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기경이 인터뷰한 그 해인 1990년, ‘세계 평화의 날’(1월 1일)을 맞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담화문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1990)를 발표했다. 추기경은 이 담화문에 창조질서 보전에 관한 교회의 입장이 담겨 있음을 강조하면서, “올해 평화의 날 메시지를 통해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정의, 평화를 위한 관심의 하나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며 교회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크리스찬의 사명”, 『전집』 16, 26)이라 평했다. 이 담화문은 추기경이 인터뷰에서 짧게 언급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과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회칙에서 교황은 경제적 개발에만 그치지 말고, 인간의 실재와 소명에 따라 추진하는 온전한 개발을 강조하였다.

인간 전체의 발전과 전인간의 발전에 협력하는 일은 실제로 모든 이가 모든 이에게 진 의무이며, 동과 서, 남과 북, 또는 오늘날 쓰이는 용어를 따르다면, 여러 ‘세계들’이 모두 참여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와는 반대로 만약 인간들이 그것을 어느 한 곳에만, 어느 한 세계에만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른 사람들이 무시되어 버린다는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네의 발전이 과장되고 오도되는 것이다. (《사회적 관심》, 49항)

회칙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하나를 희생시켜 다른 하나를 개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개발이 도덕적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연대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그 연대성의 대상에 자연도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생명체는 동등하며, 자연 세계 또한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교황은 “개발에 관한 참다운 개념은 자연 요소들의 이용, 자원의 재생 가능성 여부, 위협스러운 공업화의 후속 결과 등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며, 이 세 가지 고찰은 개발의 도덕적 차원에 관하여 우리 양심에 경종을”(《사회적 관심》, 34항)울린다고 고백했다. 회칙 《사회적 관심》에서 말하는 세 가지 고찰은 ‘생명 간의 상호연관성’, ‘한정된 자연 자원에 대한 자각’, ‘공업화에 따른 생활의 질’이다.

1987년 당시, 개발의 의미를 재고하고 자연에 대한 고찰을 통해 평화 속의 개발을 강조한 회칙 《사회적 관심》은 각 지역 교회가 사회적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자문하게 했다. 그 물음에 대한 한국 교회[김수환 추기경]의 응답은 1989년에 시작한 “한마음 한몸”운동(The “One Heart, One Body” Movement)이었다. 이어서 1990년에 발표된 담화문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는 생태계 위기에 공동책임이 있으며 새로운 연대를 절박하게 호소했다. 그 호소에 추기경은 “한마음 한몸”운동에서 추진한 우리농촌살리기 운동, 농촌학교, 우리밀살리기운동 등으로 응답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온전한 개발을 통한 창조질서의 보전을 교회에 요청한 것이라면, 추기경은 그 요청을 지역 교회인 한국 교회 안에서 “한마음 한몸”운동을 통해 전개해 나갔다.

추기경이 추진해 온 생명운동인 “한마음 한몸”운동은 90년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사이 운동 조직의 변화가 있었다. 환경운동은 환경사목위원회(2000년)로 개편·독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생활실천의 하나였던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2002)로 개편되어 독립하였다. 이는 운동을 확대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2021년 현재 한

마음한몸운동본부는 50여개국을 대상으로 나눔과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국제협력, 생명나눔, 자살예방,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노동운동에서 시작하여 민주화운동을 거쳐 귀결된 추기경의 생명운동은 온전한 인간발전(Humanam Progressionem)을 배제한 경제발전과 인간의 그칠줄 모르는 욕망에 제동을 거는 운동이었다. 동시에 문화, 계층, 이념을 초월하여 사람 간, 지역 간, 나아가 자연과의 연대를 통해 갈등에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려는 녹색평화운동이기도 했다. 이는 “한마음 한몸”운동의 이념 6항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는 오늘의 물질문명이 무절제한 소비를 통해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의 창조질서를 파괴하여 인간 삶의 터전을 근원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하므로 공동체적인 유대와 노력으로 이를 저지하고 하느님이 태초에 이룩하신 모든 피조물의 조화를 증진하여 새로운 세상을 가꾸어 나가 고자 한다(「“한마음 한몸”운동의 이념」, 6항).

2. 추기경의 ‘인간답기’와 자기 쇄신

추기경의 생명운동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했으나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평화를 지향하며 전개된 운동이다. 그럼에도 추기경은 이 “한마음 한몸”운동의 본질은 바로 사랑으로 자기 것을 나누는 운동임을 늘 상기시켰다. “한마음 한몸”운동의 이념 1항은 ‘사랑으로 자기 것을 나눈다’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마음 한몸”운동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 형제로서 찾아오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실현하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그분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히는 밥이 되어 오심을 믿는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일치하여 모일 때 그 공동체 안에 온전히 현존하심을 믿는다(「“한마음 한몸”운동의 이념」, 1항).

추기경이 강조한 ‘사랑으로 자기 것을 나눈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먹히는 밥이 되어 오심을 믿는 것”,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 온전히 현존하심을 믿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즉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믿음으로 굳건히 하고, 성찬을 통해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랑으로 자기 것을 나눈다’는 것은 적선의 개념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와 나, 그리고 이웃이 모두 ‘한마음 한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기 위해서는 성찬을 통해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추기경은 당시 제44차 세계성체대회 개최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은혜로써 치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성체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체대회 기도문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성체성사의 예수와 일치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성찬의 신비에서 드러나는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나눔으로써 주님 안에 하나되고, 주님의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으로써 사는 교회, 그리스도로 사는 신자가 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되는 공동체들의 사랑을 주변으로 확장시키면서 온 세상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생명 우리의 평화”, 『전집』 15, 646).

추기경은 성체성사의 신비에 대한 체험을 ‘밥’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잘 알려져 있는 추기경의 이 비유는 신자들에게 성체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 속에서도 성체성사의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라는 바람이 담겨 있었다. 이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예수의 모습-먹히는 빵, 먹히는 밥-을 닮길 바라는 요청이기도 했다.

우리 사회가 오늘날 전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관은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나는 결코 남의 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의 밥이 될 수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자기의 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각종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밥이 되기까지 하신 그 정신을 깊이 깨닫고 산다면 이것이 ‘절대로 남의 밥이 될 수 없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약육강식의 논리에 사로잡힌 이 사회를 구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생명 우리의 평화”, 『전집』 15, 643).

제44차 성체대회가 신자들에게 성체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면, 한마음한몸 운동은 그 신비체험을 구체적으로 사회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장(場)이었다. 그러나 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회의 외적인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내면의 신앙체험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 추기경은 《사목》(1989. 10) 잡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았다.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으며 그 신앙의 깊이를 어디에서 보충해야 할 것인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성체대회가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 기간인데 그것을 체험 못하고 뛰어넘어 버려

외적인 것, 예컨대 ‘한마음 한몸운동’(원래의 이 운동은 좋은 것이지요)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생명 우리의 평화”, 『전집』 15, 649).

이러한 우려는 “한마음 한몸”운동에 대해 과소평가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교회의 외적 성장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내적 성장에 대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성사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 이는 앞으로 10년간 사목 정책 수립 및 교회 쇄신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암시하는 좌표이기도 했다.

지금 누가 ‘2000년대’를 정확히 내다보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신자들과 함께 항상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의논하고 끊임없이 자기 쇄신(Semper reformanda)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항상 자기반성을 위한 마음가짐과 대화가 있어야 하겠고 동시에 사회 또는 세계와의 대화가 끊임없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복음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생명 우리의 평화”, 『전집』 15, 651).

이후 추기경은 1992년 사목교서를 통해 ‘2000년대 복음화와 소공동체’라는 사목계획을 1992년부터 2000년까지 9년을 세 단계로 나누어 실행해 가겠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2000년대 복음화를 교회의 과제로 삼았던 계기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한국교회 교구 설정 150주년을 비롯해 200주년과 103위 시성식을 가졌고, 세계성체대회를 치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사회정의 구현과 민주화를 위해 나름대로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수가 지난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렇고 모두 우쭐해졌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유혹에 빠진 것이지요(“복한 주민 껴안을 때”, 『전집』 16, 88).

한국교회는 지난 20여년간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특히 81년 조선교구 설정 1백50주년 기념 및 84년 교회창립 2백주년 기념대회를 계기로 급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대회를 지난 다음 보니 아까 말한 대로 수적 성장은 했는데 내적 성장이 그에 따르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본당생활은 갈수록 활기를 잃고 냉담자는 많아지며 신자들의 가치관이 과소비, 사치, 낭비 등 물질적으로 흐르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연휴나 주말이면 성당에 사람이 적어지고 여름 휴가철인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이 예전의 축제 분위기를 잃고 소홀해지는 것도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자각이 교회 내에 자연히 일어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2천년대 복음화를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정권에 고언(苦言)뎌 밤새 고뇌”, 『전집』 16, 113).

1990년대 시작한 추기경의 공동체적 생명운동은 1992년 발표한 장기적 사목계획을 통해 ‘교회의 외적 성장과 자기만족’을 지양하며 신앙의 내적 성숙을 돌아보는 자기 반성으로 마무리된다. 1969년 추기경으로 서임된 후 1998년 서울대교구장 사임까지 약 30여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한 사제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살아오면서 평생 고뇌하게 한 화두는 ‘인간’이었다. 그리고 노동운동-민주화운동-생명운동으로 이어졌던 추기경의 ‘인간답기’ 구현은 ‘자기 쇄신’으로 귀결되었다. 1998년 5월 29일, 명동대성당 축성 100주년 기념미사 강론에서 추기경은 자기 쇄신은 곧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우는 것’이며 자기 쇄신이 지향해야 할 바는 ‘사랑과 봉사’라는 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00주년의 명동성당은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안에, 세상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비우시고 낮추시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오셨듯이 우리 자신 교회도 이 나라, 이 겨레를 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우고 이 땅 깊이, 사람들의 삶 속 깊이, 정신과 마음 깊이 육화되어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 사랑의 봉사를 다해야 합니다(“복음화와 민주화의 등대”, 『전집』 12, 216).

3. 자기 쇄신과 종교적 인간

‘인간’이라는 화두는 추기경 스스로 한 사제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평생 고뇌하게 한 성찰의 단어라 할 수 있다. 추기경의 ‘인간답기’는 단지 사회운동가로서 외치는 인간존중,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 자체에만 둔다면 우리는 그 존엄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존엄과 인간권리의 근본이유, 나아가 인간평등의 이유도 바로 하느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전집』 1, 507)라고 말한 바와 같이, 추기경은 인간의 존엄이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해왔다. 즉 추기경의 ‘인간답기’ 이면에는 항상 ‘성스러움’이 전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추기경의 ‘인간답기’를 엘리아데의 ‘종교적 인간’과 연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로써 추기경의 인간 존중[인권회복]은 노동운동-민주화운동-생명운동을 통해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종교적 인간으로 완성하고자 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명동대성당 축성 100주년 기념미사 강론은 서울대교구장으로서 하는 마지막 강론이었다. 추기경에게 명동성당의 의미는 남달랐을 것이다. 그는 명동성당이 세속의 공간 속에 위치하면서도 하느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기를 무엇보다도 염원했다. 학생운동 단체와 노동운동 단체들, 사회적 약자들이 공권력에 쫓기다 마지막 피난처로 생각하고 명동성당을 찾았을 때, 추기경은 그들을 모두 명동성당이라는 공간에 품어 안았다. 추기경에게 그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그는 성당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 신자, 비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

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명동성당에서 그들과 함께 미사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명동성당이 세속적 공간과는 구별되는 성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성스러움을 경험하고 실존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의 말을 빌어 표현하면,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이라 할 수 있다. 종교적인 인간은 곧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다. 엘리아데는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상과 비밀상이 중첩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 일상과 비밀상을 엘리아데는 각각 ‘속됨’[俗]과 ‘성스러움’[聖]으로 명명했다. 여기서 성(聖)과 속(俗)은 각각의 실재로서 분리되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안에 있는 두 가지 존재 양식이라는 것, 인간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형성해 온 두 가지 생존 양식”(엘리아데, 1998: 51)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일상과 완전히 이질적인 어떤 성스러운 것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에 주목했는데, 이 현상을 성현(聖顯, hierophany)이라 명명했다. 전혀 다른 세상의 것으로 경험되는 이 ‘성스러움’[聖]이 인간 삶의 ‘속됨’[俗]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본 것이다. 즉 성(聖)은 속(俗)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속(俗)은 성(聖)과의 관계 속에서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관계를 자신의 저서인 『성과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동일한 신비스러운 사건에 직면한다. 즉 전혀 다른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의 실재, 하지만 이 자연적인 ‘속됨’ 세계에서 불가결한 요소를 이루는 여러 사물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엘리아데, 1998: 49)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성스러운 나무를 숭배할 때, 사람들은 나무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성현 때문에 숭배한다. 세속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나무가 다른 나무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음에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 평범한 나무를 성스러운 것으로 경험하면, 눈 앞에 있는 세속의 나무는 곧 초자연적인 실재가 된다. 이제 그 나무는 거룩한 것, 전적으로 다른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숭배를 받는다. 이처럼 성현은 인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직접적인 실재이다. 종교적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자연이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 그때 우주 전체가 성현이 되는 것이다.

엘리아데는 바로 성(聖)과 속(俗)이라는 ‘상반된 것의 공존’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탐색하고자 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성현을 경험하는 인간’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의미있고, 실재적인 이 성스러움을 진실로 경험하는 인간을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이라 명명했다. 엘리아데에게 종교적 인간이란 “존재하고자 하는 갈망, 실재에 참여하려는 갈망, 힘으로 충만해 있고자 하는 갈망”(엘리아데, 1998: 50)을 지닌 존재였다. 즉 종교적 인간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의 이면에 속됨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은 우리와는 다른 어떤 초월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존재와 관계 맺기를 갈망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엘리아데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실존적 상황, 즉 인간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한, 인

간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엘리아데의 관점에서 본다면, 추기경은 적어도 신자들이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시간, 공간, 자연 그 이면에 속됨을 넘어서는 성스러움, 즉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신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신앙을 넘어 근원적으로 종교적인 인간이 될 때, 비로소 ‘세상 속의 교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1970년대와 80년대 수많은 본당이 건립되면서 축성식 강론을 해야 했을 때, 추기경은 항상 성당이 하느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각 지역에 세워지는 성당이 교회의 양적 성장을 보여주는 물리적 공간으로만 남겨지길 원치 않았다. 이 성스러운 곳에서 신자들이 하느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하느님을 닮아가려는 존재론적 갈망을 갖기를 바랬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중략) 그 동안 이 성당 건축을 위해 말할 수 없이 큰 노고와 희생을 하신 본당 신부님과 신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당을 짓자면 어려움이 많고 수고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성당을 짓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신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더 잘 믿고, 사랑하며 삶으로써 참 인간의 삶을 살고, 행복 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서만이 아니고 믿는 모든 이가 같은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구원되기 위해서입니다. (중략)

이 성당은 인간에게 바로 이런 하느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 여기서 거행되는 미사 성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사를 통하여 사람은 자신의 마음 깊이에서 갈구하는 그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전집』 2, 34-35).

또한 추기경은 미사 강론 때마다 교회 전례력에 따른 축일명을 항상 서두에 언급했다. 예를 들면, ‘생명이 움트는 봄철과 함께 기쁜 부활축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등이다. 이는 사제로서 신자들에게 그 축일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시 관행으로 보아 비신자들에게 천주교의 전례를 알려 주기 위한 배려일 수도 있다. 또 아니면 전례 주기에 따른 관용구일 수도 있다. 그런데 천주교 사제이자 사회운동가로 평가받는 추기경의 삶의 궤적으로 볼 때, 그의 메시지에 등장하는 관용구는 ‘의례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회귀하는 영원의 성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근대 사회의 비종교적인 인간에게 시간은 단지 항상 변함없이 연속적인 반면, 종교적 인간은 이 속된 시간 속에서 순환적, 가역적인 시간을 경험한다. 엘리아데가 성스러운 시간인 “축제에서 생명의 성스러운 차원이 회복되고, 그 참여자들은 신의 창조물로서 인간 존재의 신성성을 체험한다.”(엘리아데, 1998: 103)고 한 바와 같이, 추기경에게 전례력은 그

축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실존의 성스러운 차원을 재발견하는 순환적 시간이었을 것이다. 매년 다시 찾아오는 전례력 속의 축일은 추기경에게 예수를 닮음으로써 실재에 머무르는 카이로스였다. 나아가 그는 예수의 모범적 행위를 인간의 정의·평화 구현을 통해 재현함으로써 ‘세상 속의 교회’, ‘속된 시간 속의 성스러운 시간’을 살고자 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 어떠한 인지(人智)로도 구명(究明)될 수는 없다. 부활은 오직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나 여기에 어떠한 인지도, 그 인지가 낳은 고도의 현대과학도 인간에게 줄 수 없는 생명의 빛이 있다. (중략)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힘들어한다. 부활은 이치에 맞지 않는 부조리 같아 보인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을 때는 인생과 세계역사 자체가 부조리가 되고 만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생과 역사의 의미 자체를 발견하게 된다. 이 현세의 암흑 속에 빛을 보게 된다. 재생의 빛을, 불멸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된다. (중략) 부활은 말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로서 고백하고 증거해야 할 무엇이다. 신자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교회 전체의 활동도 이것을 떠나서는 무의미하다. 오늘의 세상이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고백을,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세상이 어느 때보다도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부활을 증거하는 빛이 되어야 하겠다 (“부활”, 『전집』 17, 162-163).

추기경은 현대 사회의 시간과 공간이 탈신성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즉 현대의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건을 허구적 이야기로 치부하고, 인간의 실존과 연결하지 못하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는 축일을 ‘예수를 닮음으로써 실재에 머무르게 하는 카이로스’로 만들고자 했다. 그에게 축일은 시대의 대표적 징후를 알게 하는 새로운 시간의 창조였다. 축일은 주기적으로 성스러운 역사의 재현인 동시에 시대의 징표를 읽는 창조의 시간이었다. 또한 종교적 인간으로서 성스러운 시간에 대한 실존적 성찰이 담긴 글이었기에, 추기경의 말씀에는 신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세속적 의미, 그 이상의 힘이 있었다. 한 예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군 고문살인’과 같은 폭력과 인권유린이 법과 질서라는 미명 아래 극에 달했던 1987년 4월 19일, 추기경은 부활 강론 원고를 관례에 따라 서울의 각 언론사에 보냈다. 그때 대부분의 신문사에서 그의 강론을 크게 보도했었는데, 추기경의 메시지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축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이 또한 1960년 이땅의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 많은 피를 흘린 4·19 기념일이 되어서 더욱 부활의 은총이 우리 사회와 나라에 넘치기를 빌고 싶습니다. (중략) 국민은 있어도 주

권은 없고, 신문·방송은 있어도 언론은 없으며, 국회나 정당은 이름뿐이요, 힘만이 있고 정치는 없는 공허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망인 민주화가 정략의 도구로 쓰여지고, 보다 밝은 정치의 새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었던 헌법개정 꿈은 기만과 당리당략의 술수 아래 무참히 깨졌습니다. (중략) 부활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축일입니다. 또한 부활절은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축일입니다. (중략)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끔 믿고 어떤 절망적 환경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진리와 정의 및 사랑의 불을 지피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억압된 민중의 짓밟힌 인간성을 반드시 살려 주실 것입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산과 바위 틈에서 이 봄에 진달래꽃이 환히 피어나듯이 그렇게 이 땅에서도 인간다운 삶의 꽃이 피어나도록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 생명의 물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빈무덤”, 『전집』 1, 356-361).

추기경은 자연 속에서도 하느님의 실존을 경험하길 바랐다. 예를 들어, 추기경은 1994년에 설립된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또한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어려운 농촌을 돕는다는 시혜적 차원의 운동이 아니고 내가, 우리가 제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운동’임을 강조했다. 이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농민의 삶이 그 자연의 섭리조차 잊고 살아가는 도시인들을 비추는 거울이 되길 바라는 추기경의 요청이었다. 여기서 하느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물질로만 대상화하는 현대인들은 추기경에게 비종교적인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추기경은 1996년 농민주일 제정 관련 인터뷰(1996. 6. 29)에서, 왜 교회가 농민을 기억해야 하는지 종교적 의미를 통해 상기시켰다.

우리 농촌의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농업, 농촌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고는 결코 우리 사회와 나라의 건강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문제가 단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님은 자명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생명 경시, 사회 공동체 해체, 상호불신 등 현대 산업 사회적 혼란과 비인간화 현상 등은 그 근원이 자연과 공생하는 농업적 삶의 가치를 포기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화, 산업화의 물질문명 속에서 심각하게 병들어 죽어가고 파괴되는 생명을 살리고, 자연 생태계 창조 질서를 보전하는 일은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농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위기에 처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형성과 연대는 공동체의 공동체로서 교회 본연의 의무이자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생명을 섬기고 가꾸는 이들”, 『전집』 6, 498).

농민주일은 7월 셋째 주일이다. 이날은 농민을 위한 주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농민과 삶을 연대하는 도시 소비자들의 주일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 간의 연대에는 항상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촌과 도시 간의 성스러움의 연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기경은 ‘녹색연합 후원의 날’ 행사(1999. 10. 6)의 격려사

에서 외적인 생태운동에 앞서 먼저 생태학적 신앙고백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생명운동은 신앙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리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의 녹색평화를 외면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녹색평화, 온 누리의 모든 것들이 즐겨 기쁘게 어울리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간절하게 뉘우쳐야 합니다. 반성 없는 발전 그리고 뉘우침 없는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신앙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생태학적 신앙고백”, 『전집』 17, 397).

추기경의 생태학적 신앙고백은 종교적 인간이 해야 할 자기 쇄신을 위한 우선적 행위라 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 자연을 물질 그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비종교적 인간들에게는 경종을 울린다.

IV. 나오며 - 종교적 인간, 김수환 추기경

‘종교적 인간’에 대한 엘리아데의 탐구는 당시 근대 사회를 살아가던 비종교적 인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비종교적 인간이 “그 자신을 오로지 역사의 주체 및 동인으로만 간주하며, 초월적인 것을 모두 거부”(엘리아데, 1998: 183)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엘리아데는 비종교적 인간의 탄생은 인간 실존의 탈신성화 과정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비종교적인 사람들 대부분이 비록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엘리아데는 근대 시대의 사람들을 비종교적 인간, 전근대 시대의 사람들을 종교적 인간으로 구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비종교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근대인이 종교적 인간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점에서 엘리아데에게 종교는 신앙인에게만 유효한 전통이 아니라 근대인들에게 인간의 실존적 위기를 모범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모델이었다.

추기경은 또한 1969년 당시 비종교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상황과 종교의 미래에 대해 암울하게 전망했다. “이미 종교나 정신의 기존 가치관은 크게 동요되고 있다. 오늘날은 물질이 가장 숭배되는 시대상을 형성해 가고 있으며 그 반면 종교는 크게 평가 절하되고, 정신은 내면 분열로 황폐되어 가고 있다. 70년대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되어 정신계, 종교계는 전대미문의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 모른다. 이것은 인류 공동체의 운명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교회에 부여된 과제”, 『전집』 5, 376-377).

종교 위기에 대한 추기경과 엘리야데의 우려는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유효하다. 오늘날에도 현대인들은 종교에 크게 관심이 없다. 자연에 감추어진 신비를 느끼지 못하고, 초월적인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은 늘 변함이 없고, 시간은 어김없이 반복되며, 자연은 타자화된 대상일 뿐이다. 추기경은 재임 기간 내내 이렇게 비종교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공간과 자연 속에서 결국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시종일관 상기시켰다.

추기경의 말씀이 여전히 신자, 비신자를 막론하고 현대인들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가 단지 사제였기 때문에, 특히 고위 성직자였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에서 시작하여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거쳐 생명운동으로 귀결되는 ‘인간답기’ 구현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구현의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추기경의 깊은 종교적 성찰이 있었다. 추기경에게 종교적 인간은 시대를 역행하는 고루한 인간,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안주하는 편협한 신앙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인지를 고민하는 사람, 세속적인 공간 안에서 종교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곧 종교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종교적인 인간들이 참된 신앙인이 되어 ‘세상 속의 교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기경 주창한 종교 역할에 대한 근원적 성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야기한 인간에 대한 성찰, 생명에 대한 고귀함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References

- 김수환추기경전집편찬위원회 편 (2001). 『김수환추기경전집』 전 18권. 서울: 가톨릭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The Cardinal Stephen Kim Soo-hwan Compilation Committee (2001). *Cardinal Stephen Kim Soo-hwan Complete Collection*. 18 volumes, Seoul: The Catholic Publishing Company.
-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 편 (2008). 『김수환추기경말씀집』 전 35권. 서울: 가톨릭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The Catholic Faith Life Research Institute (2008). *Cardinal Stephen Kim Soo-hwan's Book of Messages*, 35 volumes. Seoul: The Catholic Publishing Company.
- 김수환추기경연구소 편 (2021). 『김수환 추기경에게 정의와 평화의 길을 묻다』. 서울: 가톨릭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Compiled by The Stephen Cardinal Kim Institute (2021). *Ask Cardinal Stephen Kim Soo-hwan A Path to Justice and Peace*. Seoul: The Catholic Publishing Company.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2000).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Translated in English) Pope John Paul II (2000). *On Social Concerns (Sollicitudo rei socialis)*.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90). 세계 평화의 날(1990년 1월 1일) 교황 담화문.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 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는 평화』.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홈페이지).
- (Translated in English) Pope John Paul II (1990), *Message for the Celebration of the World Day of Peace, 1 Jan. 1990, Peace with God the Creator, Peace with All of Creation*,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Homepag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https://cbck.or.kr/Documents/Pope/402226?page=46>).
- 이충렬 (2016). 『아, 김수환 추기경』 1. 파주: 김영사.
- (Translated in English) Lee, C. R. (2016). *Ah, Cardinal Stephen Kim Soo-hwan*, 1 volume. Paju: Gimmyoung Publishing Company.
- 정진홍 (2003). M. 엘리아데. 종교와 신화. 서울: 살림.
- (Translated in English) Chung, J. H. (2003). M. Eliade. Religion and Mythology. Seoul: Sallim.
-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운동 교구본부 [발행년 불명]. ‘한마음 한몸’운동.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운동 본부.
- (Translated in English) The “One Heart - One Body” Movement Parish Headquarters of Archdiocese of Seoul (Unknown publication year). The “One Heart - One Body” Movement. Seoul: The “One Heart - One Body” Movement Headquarters of Archdiocese of Seoul.
- 최재천 (2020). 「생태와 인간」, 최재천 외, 코로나 사피엔스, 서울: 인플루엔셜.
- (Translated in English) Choe, J. C. (2020). Ecology and Human, Choe, J. C., Jang, H. J., Choi, J. B., Hong, K. B., Kim, N. R., & Kim, K. I., *Corona Sapiens*. Seoul: Influential Publishing Company.
- Eliade, M. (1984). *Das Heilige und das Profane*. Frankfurt am Main: Insel Verlag.
- Eliade, M., *Das Heilige und das Profane*, 이은봉 옮김 (1998). 성과 속. 서울: 한길사.
- Snowden, Frank M. *Epidemics & Society*. 이미경·홍수연 옮김 (2020). 감염병과 사회. 파주: 문학사상
- Park, S. C. (2020). Cardinal Stephen Kim Sou-hwan's "Church for the World" - The Korean Church's Acceptance of the Ecclesiology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Journal of Human Studies*, 42, 7-55.

- Park, I. Y. (2018). Peace Thoughts by Stephen Cardinal Kim Sou-Hwan.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10(1), 161-184.
- Catholic Times (1986.11.09.). The 20th anniversary of the Catholic Farmers' Association. Retrieved February 23, 2022, from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35353.
- Hankookilbo (2021.06.10.). Forgetting the corona experience and simply returning to 'normal' is a serious mistake. Retrieved February 23, 2022,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909540004953>.